

# 광주시, e스포츠 전문역량 키울 신흥 메카 '급부상'

전국 최대 전용경기장 등 갖춰  
조선이공대, e스포츠 인재양성  
아시아게임 허브 구축 '온 힘'

국내 최대 규모 전용경기장부터 교육원, 전국대회 개최, 지역 대학 전문학과 등 e스포츠산업 인프라를 탄탄히 갖춘 e스포츠 신흥 메카 광주로 MZ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와 올해 호남대 e스포츠산업학과에 입학한 최환(21)씨. 그가 수도권대학을 마다하고 광주를 선택한 이유는 오로지 'e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직접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로서 e스포츠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광주는 대형 전용경기장에 교육원도 있고 대회도 자주 개최되는 등 e스포츠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했죠."

최씨의 말처럼 이 대학 e스포츠산



광주시청 전경.

업학과 학생들은 상당수가 외지에서 유학온 경우로, 이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부터 e스포츠 전반에 대한 이론, 프로그래밍, 매니지먼트 등 미래산업으로서 e스포츠산업의 실무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e스포츠구단을 직접 운영하는 e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직업으로 꿈꾸는 학생부터 e스포츠 리그기획

자, 리그사무국 운영, 심판, 프로리그 해설가, 에이전트, 게임기획자, 게임방송 크리에이터까지 각자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온 장수민(20)씨는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단순한 게임동아리가 아니라 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이런 실무능력을 쌓아서 해설가나 매

니지먼트, 기획자 등 e스포츠업계에 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생들이 e스포츠의 꿈을 키우기 위해 광주를 찾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탄탄한 e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크다.

조선이공대도 내년부터 e스포츠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지역 대학들 또한 적극적으로 e스포츠 인재 양성에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는 e스포츠를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래 신산업으로 보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광주를 아시아 게임 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조선대 캠퍼스안에 구축한 국내 최대 1005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갖춘 '광주 e스포츠경기장'을 활용해 계층별·세대별 대회, 대형 대회, 프로리그 등을 개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광주 e스포츠교육원은 e스포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e스포츠 기초부터 매니지먼트, 방송제작 송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이다.

교육원은 상설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한 조선대와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호남대가 주축이 돼 지역 다른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내년 아시아 e스포츠산업지원 센터를 구축해 외국 선수·팀 대상 전지훈련 프로그램 개발, e스포츠 구단 지원 등 민간 분야 연계, 지속적인 e스포츠 콘텐츠 생산 등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산업은 매출액은 2018년 기준 국내 방송 분야 453억 원, 게임 단 366억 원, 스트리밍 방송 255억 원이다. 전체 글로벌 산업 규모는 매해 4~30%씩 성장해 2020년 기준 11억 달러(1조35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경북도의회, 군위 대구 편입 '찬성' 제출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  
도의회 제 326회 임시회 제출

경북도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경북도의회 공식적인 '찬성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지난 15일 제출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행안부에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30일 행안부는 "도의회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다시 경북도의회 의견청

취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이 안을 긴급 안건으로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법률안 입안, 입법 예고, 법제처 법안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가 전해질 행안부장관 예방 때 행안부의 연내 입법추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관할구역 변경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비지원과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업무 가중으로 광주·전남 보건소 퇴사 증가

근무인력 퇴사·휴직율 매년 증가

코로나19 이후 업무 가중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 보건소 근무인력의 퇴사·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올해 5월31일 기준 579명, 전남 1563명이다.

현원 대비 퇴사율은 광주의 경우 2017년 1.0%, 2018년 0.7%, 2019년 0.9%였지만 지난해 1.2%로 늘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0.9%, 1.3%, 1.8%, 1.4%이다.

보건소 공무원 휴직율은 광주가 2019년 5.4%에서 지난해 9.5%로 증가했으며 전남은 각각 5.5%에서 6.2%로 늘었다.

병가 사용일수도 광주는 2019년 1.8일에서 지난해 2.9일로 두배가까이 늘었으며 전남은 2.4일에서 3일로 증가했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23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체를 채취하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1만9278명 중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으며 휴직을 신청한 인원도 173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이었던 보건소 역량의 한계가 휴직율과 퇴사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무안 박성순 농가 '대통령상'

전남도는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4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무안 박성순 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1993년부터 개최해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올해 평가대회는 전남지역 농가 26곳을 포함해 전국 240개 농가가 참여했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체외 및 외모 심사, 도축, 최종평가 등이 치러졌다.

무안에서 한우 234마리를 사육하는 박성순 농가의 출품 한우가 품질을 높게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선보인 한우는 출품 당시 체중 897kg, 도축 체중은 542kg으로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7000만원에 낙찰됐다. 1kg당 2만3000원 수준인 일반 한우고기의 5.7배가 넘는 13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 병원선서 백신 맞은 전남 섬주민 12명 뿐

병원선박, 냉장시설 미구축

전남 섬지역 주민 2만여명이 병원선박을 이용하고 있지만 냉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는 섬지역 주민 진료와 치료를 위해 병원선 2척(전남 511호·전남 512호)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 병원선 2척은 1년 평균 352차례 운행 됐으며 섬지역 주민 2만1200여명이 진료·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병원선을 통한 백신접종은 전남 511호에서 12명 뿐이었으며



경상남도 병원선 경남511호

전남 512호는 없었다.

병원선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할 냉장시설이 없어 운송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남 섬지역 주민 백신 접종률은 지난 9월 기준 1차 82.9%, 접종완료 71.1%로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나와 백신 접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김태수 기자

## 곡성군, 공모사업 선정... 총 598억 마련

각종 공모사업 54건

전남 곡성군이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에 54건이 선정돼 총 59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이달 현재까지 각종 공모사업에 54건이 선정돼 국·도비 329억 원 포함 총 59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주민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37억원'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 원 등이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곡성지역은 하천 정비, 우수 저류 시설, 배수펌프장, 교량 설치, 우수관로 정비,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그린뉴딜사업으로 2022년 신재

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29억원을 확보했다.

생활체육·문화 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문화산업 육성 관련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이 선정됐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사업으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억원, 초생활거점조성사업 31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 같다"며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남=김태수 기자